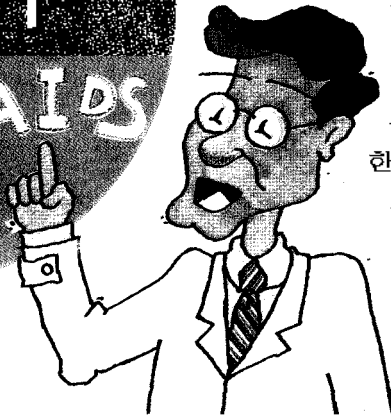


신영오 교수가 말하는 AIDS와 함께하는 세상 ㉔

HIV의 성적전파와 통계의 의미

AIDS

신영오
강원대 외대 교수



어느 날 깨끗하게 생긴 이십대 후반의 한 남자가 HIV상담을 위하여 필자의 실험실을 찾아 온 적이 있다. 그는 HIV양성으로 통보 받았으나 결과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로부터 다시 채혈하여 검사한 결과는 예측한대로 양성으로 확인되어 자세한 상담을 갖게 되었다.

그는 동성애자도 아니며 성적으로 방탕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가 HIV감염을 의심할 과거의 유일한 성관계는 수 개월 전 오랜 해상생활 후에 필리핀에서 윤락녀와 하루 밤을 같이 지낸 것이 전부라는 것이다. 다만 성 관계시에 출혈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이러한 사례에서 그의 진술에 대한 진실여부와 성관계에서 HIV에 감염될 가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감염확률을 믿을 수 있을까?

에이즈의 역학과 관련된 통계학을 배운 사람은 그의 말에 신뢰를 보낼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할 가능성이 많다. 에이즈의 역학에서는 단 일회의 성 관계에서 HIV에 감염될 기회는 수백분지 일에도 지나지 않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감염자와의 일회 성적 접촉에서 HIV에 전파될 위험성은 아직도 정확하게는 모른다는 것이다. 다만 인구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남성생식기와 여성생식기 혹은 남성생식기와 항문접촉에 의하여 HIV가 감염자에서 비감염자로 전파될 위험성은 수백분지 일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통계는 일정한 집단의 인구내에서 평균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개개인의 경우에는 해당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HIV에 감염되지 않고도 많은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단 일회의 성적 접촉 후에 HIV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 감염자와 반복된 성관계로 인하여 전파의 위험성은 보다 증가된다.

●감염의 여러가지 변수

성적으로 HIV에 감염될 때에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하여 그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다.

첫째, 우선 성적 대상자의 HIV감염 여부에 따라서 위험성이 결정된다. 성적활동에 있는 사람들에서 HIV감염의 유병률은 동일 국가내에서도 도시와 농촌, 항구 등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그 지역내에 종교, 직업 유흥업소 등 속하는 집단에 따라서 달라진다.

두 번째로 성교의 형태에 의하여 위험성이 달라진다. 성형태에 따른 감염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위험도가 알려진 것은 아니다. 항문이나 접막에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파되기 위하여 상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수동적인 항문성교 형태를 취하는 경우이며 질성교는 구강성교보다 감염위험성이 더 높다. 또 성매개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감염된 남성에서 비감염여성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감염여성에서 비감염남성으로 전파될 가능성보다 높다. 구강-성기접촉이 HIV를 전파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그 위험성 정도를 정량화하기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 없다. 키스 행위는 전파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혀를 사용하는 키스의 경우 HIV가 전파될 이론적인 위험성은 있다.

세 번째로 감염된 상대자의 혈액이나 분비물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양이 위험도에 영향을 준다. HIV 감염자가 현성질병과 에이즈로 진전됨에 따라서 감염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파의 위험성은 높아진다. 따라서 HIV 감염자가 말기에 갈수록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성매개질환의 존재여부이다. 성관계를 하는 한 쪽이나 둘 모두에서 성매개질환이 있는 경우 HIV 전파의 위험성이 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연성하감, 매독, 헤피스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패양성 성매개질환은 비감염자로 하여금 감수성을 높여주고 이미 감염된 사람의 감염력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따라서 상기한 여러 가지의 요소에 의하여 HIV의 전파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에이즈 같이 치명적인 질병에 관한 상담에서 평균적인 가능성을 갖고 취급하는 것은 의미

가 낮으며 판단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본문의 처음에 언급한 감염자와 같은 경우 그의 말에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나름대로의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너무나 억울해서 도저히 본인의 감염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기가 있다.

이와 같은 예로서 또다른 감염자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담에서는 성생활 자체에 대하여 언급을 회피하였다. 필자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동성애자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 감염자는 죽기 앞서 사이토바이러스에 의하여 맹인이 된 상태에서 녹음으로 자기의 느낌을 들려준 적이 있다. 본인은 운이 보통정도이었다면 세균성 성매개질환이나 항생제로 간단히 치료될 수 있는 임균에 걸릴 정도의 성생활 이력밖에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본인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갖은 고통과 수모를 당하는 것은 불운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그는 전자의 경우 보다 많은 성적 대상자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

어떻든 이 양자에서 불운한 일이 있기 전에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감염된 사실을 생각할 때 강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즉 이들 모두가 과거 성적 접촉 시에 HIV를 의식하지 않았으며 콘돔사용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HIV의 위험성과 콘돔사용에 관한 간단한 홍보라도 있었더라면 그들과 주위 사람의 불행은 예방할 수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지금도 홍보를 받을 수 있는 거의 여부에 따라서 수 많은 사람의 생사가 갈린다고 생각할 때 에이즈에 관계하는 문들의 사명감을 새삼스럽게 실감하게 된다. ㉠